

잠언, 욥기, 전도서의 특징은 기존의 토라, 예언서와는 달리 특별한 계시나 이스라엘 고유의 구원의 역사를 지혜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데 있다. 외경의 집회서와 솔로몬 지혜서는 오히려 이런 차이를 좁혀 모세의 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주된 가르침으로 삼는다.

A. 집회서(Ben Sirach)

- 저작 시기
 - 기원전 2 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쓰였으며, 저자는 "예루살렘 출신 엘아자르 [Ελεάζαρ, Eleazar]의 아들, 시라의 아들 예수"(50:27)로 그의 손자가 이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
 - 집회서 50 장에서 저자는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 대사제를 언급하고 서문에서는 자신이 툴레미왕조 에우에르게테스(Euergetes) 통치 38 년에 이집트로 이주했다고 적는다. 아직 툴레이왕조와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4 세(175-164)와의 분쟁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 약 180 BCE 경에 집필된 것으로 판단.
 -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1:1). 집회서 집필 당시 토라와 예언서는 이미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외의 글들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
- 내용
 - 실질적 가르침 (1-23 장): 부모 공경(3-6 장), 친구/우정, 어린이와 노예를 대하는 법
 - 권세가와 겨루지 마라. 네가 그의 손아귀에 떨어질까 두렵다.(8:1); 판관을 걸어 소송하지 마라. 그는 명예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리라(8:14).
 -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10:10).
 -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11:8).
 - 좋은 일과 굶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께에서 온다(11:14).
 -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뜯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친구와도 원수와도 [남의] 이야기하지 마라. [네게]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네 말을 들은 이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19:6-9).
 -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22:10).
 - 지혜 찬송(24 장). Cf. 잠언 8 장
 - 창조주 찬송(39-43 장)
 - 조상 찬송(44-50 장): 희생제사에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7:31; 14:11),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제사장 계열을 높게 평가한다(아론과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
- 주요 사상
 -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좋은 아내란 침묵과 겸손을 갖춘 자(26:1-4, 13-18)로 참언 31 장의 현숙한 여인이 사업을 잘 경영한다거나 하는 말이 없다.
 - "여자의 죄에 비하면 어떤 죄도 작다"(25:19).
 -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여자는 수치와 비난을 가져온다"(42:14).
 - "여자에게서 죄가 시작되었고 여자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는다"(25:24)=> 딤펢전 2:14,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담에게서 죄를 찾는다=> 롬 5:12-21; 고전 15:22)
 - 토라와 동일시되는 지혜. 지혜문학을 토라전통 속에서 이해.
 -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1:1);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다"(19:20). 집회서의 지혜(σοφία, sophia)는 철학적 사고의 산물도, 여신도 아닌 하느님의 선물이다.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1:10).

-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왔으며” 창조주는 “야곱의 땅에 네 집을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네 유산을 받으라” 명한다. 이것은 신 32:8-9 을 연상케 하며 또한 요 1:14 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성육신 사상을 일으킨다.
- 지혜서 24:19-22 역시 요 6:35 의 “생명의 빵” “생수”와 비교.
- 지혜서 24:23,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 이전의 지혜문학인 잠언, 전도서, 욥기가 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지혜서의 입장은 분명 지혜문학을 토라전승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 신정론 문제: 전능하신 창조주 강조
 - 집회서의 신정론은 스토아 철학에서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짝을 이루는 것 또한 창조주의 질서다. Cf. 집회서 33:14-15; 42:24-25.
 - 폭풍과 재난은 하느님의 진노를 발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지만(39:27), 사후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41:1-4), 죄의 문제를 욥기만큼 심각하게 다루지 못했다.

B. 지혜서(The Wisdom of Solomon)

- 세 부분: 종말의 책(1:1-6:21), 지혜의 책(6:22-10:21), 역사의 책(11-19 장)으로 분류.
 - 종말의 책(1:1-6:21)
 - 땅의 통치자들에게 하는 연설문.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1:1). “정의를 죽지 않는다”(1:15).
 - 영혼불멸 사상, 사후심판(5 장). 잠언, 전도서, 집회서와는 달리 지혜서 저자는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 다니엘서처럼 사후 심판(12:1-3)을 죄/악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본다.
 - 지혜서의 영혼불멸은 창조질서에 기인한다. 영혼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멸한다(2:23).
 - 로마카톨릭교회 장례 예전: “의인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다”(3:1-3).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 지혜의 책(6:22-10:21)
 - 이제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 주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신비도 감추는 일 없이 지혜가 생겨난 시초부터 자취를 더듬으며 그에 대하여 아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사람을 쯤먹는 시기를 결코 길벗으로 삼지도 않겠다. 시기는 지혜와 자리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6:22-23).
 - 지혜서 7 장은 솔로몬의 기도(열왕기상 3 장)을 염두에 둬. 기도를 통해 지혜의 영이 오고,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왔다(7:7, 11). “주님의 영”(1:7)은 세상의 말을 모두 안다.
 -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개념(7:22-8:1). 스토아학파에서 영(프뉴마)은 우주의 영혼으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실체다. 지혜서에서는 이 지혜/영/로고스가 그 자체로 만물에 내재한다기 보다는 초월적 하느님과 우주 사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개념과 다르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일 뿐 어떤 오점도 그 안에 있을 수 없다(7:24).
 - 역사의 책(11-19 장)
 - 지혜는 아담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족장들을 곤경에서 구하고(10 장), 예언자들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었다(11 장).
 - “비이성적인 뱀과 무가치한 동물”(11:15)을 섬기는 이집트인들을 경멸. 하지만 하느님의 긍휼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금씩 꾸짖으시고,” “조금씩 멸망시키신다”(12:2, 8).

-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상숭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13-15 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피조물의 웅대함을 통해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어야(13:5).=>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이런 우상숭배가 “모든 악의 원인이고, 시작이고, 끝이다”(14:27).
 - 오히려 자연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이라고 가르친 헬라 철학자들에게 훨씬 동정적. 그들을 크게 탓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빛나갔을지도 모른다”(13:6) => 롬 1:18-23
- 영혼 불멸 사상
 - 플라톤 철학의 영향은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다. 기원 후 1 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저술된 지혜서는 초기 기독교 신학—특히 영지주의와 로고스 신학—에 지대한 공헌.
 - 플라톤 생각에, “우리가 몸이 있고 영혼이 그러한 악에 의해 오염되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완전히 얻지는 못할 것이다”(Phaedo, 66B).
 -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집회서 9:15).
 - 그러나 모든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의인에게 열린 희망. 죽음은 “악마의 질투”로 세상에 들어왔고(2:24), 창조 질서와는 거리가 있다.
 -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를 모델로 한 지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로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관찰할 수 있다. 지혜문서의 근본 사상.

결론: 지혜문학의 유산

- ✚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
- ✚ 회의주의와 제 3의 신학. 기존 신학/가치관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약효를 상실할 때.
- ✚ 정체성과 행동윤리. 성서의 기본적인 틀.